30돌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마음 불사' 이어져

2월 27일 30주년 기념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92년 마산서 개원, 30년 불사
경남중부권 불교 포교에 매진해
"정진으로 성장하는 도량될 것"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올해로 개원 30주년을 맞은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이 대행 선사의 원력을 받들어 불퇴전의 원력으로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지원장 혜춘)은 2월 27일 경내 대웅전에서 개원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지원장 혜춘 스님을 비롯해 양호성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고문, 최종열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마산 등 경남 중부권 포교 매진

1991년 6월 28일 경남여성사회복지관에서 봉행된 '대행 큰스님 마산법회'로 결성된 모임이 시금석이 된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은 개원 이래 마산 등 경남 중부권 포교에 매진해왔다.

1992년 2월 29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 147-1번지에서 마산지원으로 개원했으며, 개원법회 이후 열린 대행 선사 초청 법회에는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동참했다. 1994년 12월 11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2동으로 이전했고, 1995년 12월에 현재 위치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일대를 매입해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을 개원했다.

1998년 3월 8일에는 신축법당 기공식 및 화합재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하는 등 불사들을 이어가며 수행 도량의 면모를 다졌다. 2000년 4월 30일 해수관음상 점안식 및 영탑공원 준공법회, 2009년 9월 29일 신축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고, 2018년 본관 리모델링, 2019년 2월 24일 대웅전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이어가며 일대 성역화 불사를 마무리했다.

이젠 '마음 불사'로 성장할 때

30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대행 선사의 원력으로 이뤄진 지난 30년 불사의 역사를 되새기고 "이제는 '마음의 불사'를 통해 도량을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중남부지원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사부대중의 정성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도량이 성장한 만큼 사부대중도 함께 성장했을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개원 30주년을 맞아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지고 열심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혜솔 스님은 축사에서 "지난 30년 동안 도량을 정비하고 닦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주인공 자리가 마련됐다면 그것이 이 도량이 주는 선물"이라며 "앞으로 '마음의 불사'에 매진하며 더욱 더 성장하길 바란다"고 수행 정진을 강조했다.

지원장 혜춘 스님은 "오늘 법석은 불사에 함께 한 사부대중의 신심이 느껴지는 자리"라며 "무엇보다 진리의 문을 열어주신 대행 선사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정성과 은혜를 잊지 않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경남지원 신도들도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양호성 고문은 감사 인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도량은 깊고 넓은 한마음으로 이뤄진 우주법계의 통신처로 간절히 구하면 허공의 무한 에너지도 끌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다"며 "중부경남지원은 지난 30년의 불사로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도량이 됐다. 이곳에서 묵묵히 정진해 본래 밝은 한자리에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열 신도회장도 인사말에서 "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을 할 수 있게 이 도량을 세우신 대행 선사의 원력을 마음에 새긴다"며 "앞으로도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호남불교계, "국립공원 제도가 문제, 개선하라"

민주당 불교정책 간담회서 요청



호남불교계가 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여해 지역 불교현안의 문제점을 알렸다. 민주당은 3월 1일 백양사(주지 무공) 향적전에서 불교계 공약 설명회를 열고 지역사찰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월 20일 통도사에서 열린 영남권 사찰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다.

'여시아문 신수봉행'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이날 불교계 정책간담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 무공 스님(백양사 주지),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 자공 스님(송광사 주지), 법상 스님(대흥사 주지),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등 5대 교구본사 주지와 조계종 호남지역 종회의원인 석장, 만당, 설도, 원명, 대진, 향문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도계 스님(수석부회장), 해청 스님(총무부장), 이범식 신도회장 등 출재가 자가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전통문화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이개호, 김승남, 서동용 의원과 송지용 전북도의장을 비롯한 지역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무공 스님, 덕문 스님의 인사말과 김영배 의원의 민주당 불교정책 설명, 스님들의 소견발표,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됐다.

무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추운 겨울 산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종교와 정치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만, 지역현안으로 민생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덕문 스님은 "이번 선거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공약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가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에서는 '사찰소유 토지에 대한 규제 합리적 개선', '국가지원을 통한 문화재관람료 제도 폐지', '사찰림의 가치 보존',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정책안이 소개됐다. 또 '연등회, 영산재 전승관 건립', '불교대장경의 디지털화', '반출 문화재 환수와 불교문화재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등 지원방안도 나왔다.

조계종 원로의원 성오 스님은 "백양사도 예전에는 자연 농산물을 활용해 자생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1960년대 국립공원이 지정되며 사찰 규제로 입장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립공원 지정시 불교계 입장도 묻지도 않고, 규제만 한다"고 성토했다.

종회의원 만당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은 별개의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찰이 받은 많은 규제 중 국립공원 내에 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규제해온 것이 문제다. 국립공원과 사찰림을 분리해 자체적 활용이 가능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도선사, 복지기관 3곳에 '자비 쌀' 나눔

3월 3일 초하루법회서 전달식
(사)다나·승가원에 年3톤 기부
혜명복지원엔 8톤을 전달키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발원도

호국기도도량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가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기관과 단체에 '자비의 쌀'을 기부했다.〈사진〉

서울 도선사는 3월 3일 봉행된 초하루법회에서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을 위한 자비의 쌀 지원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을 통해 (사)다나·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는 연간 3톤, (사)혜명복지원에는 연간 8톤의 자비의 쌀이 전달된다.

이번 자비의 쌀 전달은 도선사 신행단체가 보시금을 마련해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도선사 신행단체들이 한겨울에 참배객 대상으로 군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이번 '자비의 쌀' 기금을 마련했다"면서 "도선사는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시설과 단체에 매년 150여 톤의 쌀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도 더 관심을 가질 곳이 많고, 미처 도움을 드리지 못한 곳도 많아 지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쌀을 지원받게 된 단체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사)다나는 노숙자에게 먹거리를 나눠주고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께서 자비의 쌀을 지원해주셔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정화 승가원 부장은 "승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며 "이번에 후원해 주신 쌀로 저희 장애 가족들과 장애 아동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선사는 최근 발발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또한, 주지 태원 스님은 새로 임명된 포교국장 본연 스님, 사회국장 관태 스님, 문화국장 인우 스님, 박영근 종무실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능인학원, 능인고 '지혜관' 2월 24일 준공

민족사학 전법도량 능인학원(이사장 도진)은 2월 24일 능인고 씨름부 훈련장 및 특별교실 '지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과 주호영 국회의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김대권 수성구청장, 김동원 총동문회장, 이병철 대구광역시 씨름협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혜관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공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청과 수성구청 지원 하에 동창회원들의 모금으로 36억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됐다.

지상 3개층, 연면적 1,903㎡의 규모로 건물내부는 씨름부 연습장과 도서실, 다목적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인고는 씨름 명문으로 보다 나은 훈련환경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서실과 특별 교실, 다목적 교실 등의 교육 공간은 앞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설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 자율 탐구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울산 정토사, 코로나 극복 연주회 열어

2월 26일 정토어울림합창단
시민들 지친 마음 치유 시간



울산 정토사(회주 덕진)는 2월 26일 울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5회 정토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 주지 증관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전기택 정토사 신도회장, 강학수 사무국장 외 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사진〉

어울림합창단은 강주현 작곡가의 사회로 아침서곡, 브라보 아코디언 앙상블의 백만송이장미, 색소폰 김영찬의 천년의 사랑을 공연했고 E&I중창단도 연꽃법당 등을 선보였다.

울산 정토사 회주 덕진 스님은 "우리 정토사에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을 의식에 사용하고 현대 음악으로 작곡된 찬불 성악곡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연주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친 마음을 치유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민주항쟁 투사 어머니 49재

광주 증심사, 2월 26일 봉행
이한열 열사 모친 배은심 여사



민주항쟁 투사인 이한열 열사를 어머니로서 뒷바라지하고 또 다른 민주투사로 활동해온 배은심 여사의 49재가 무등산 증심사서 봉행됐다.〈사진〉

광주 증심사(주지 중현)는 2월 26일 대웅전에서 故 배은심 여사 49재 막재를 봉행했다. 1월 9일 향년 82세로 운명한 배은심 여사는 1987년 6월 아들 이한열의 사망 이후 역시 민주투사로 살아왔다.

이날 49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유가협 회원, 오월어머니 회원,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김정길 6.15공동위광주본부 상임대표,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前 관장, 한동건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인숙 연세대민동 회장, 박봉주 광주전남추모연대 공동대표, 윤영덕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민주화를 열망했던 그 마음이 바로 5월 광주정신이고 무등산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주 죽림사, 인근 화학공장 신축 반대나서



천년고찰 인근에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화학공장 건립이 추진돼 인근 불자들이 반대운동에 나섰다.

나주 죽림사(주지 혜문)는 2월 26일 나주시청 앞에서 마을주민 공동대책위원들과 함께 '카본·헥사 제조공장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죽림사 사하촌에 건립되고 있는 화학공장은 2021년 11월 착공해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다. 시민사회와 지역불교계의 반대로 나주시청에서 건축허가 절차 진행 중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죽림사는 남평읍 지역발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회, 의용소방대, 농촌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농협영농회, 자율방법대 등이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해 반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혜문 스님은 "차후 화학공장의 분진과 산성비로 인해 사찰 문화재와 수행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공장설립에 따른 사전 주민동의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진행된 적이 없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마을주민 최민수 씨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과 비슷한 위험 발생물질을 배출하는 탄소섬유 공장은 마을 주민을 모두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주 죽림사는 백제시대인 440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각종 보물 등이 소장돼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